

2016년 12월 7일, 서귀포시 서호동 허노생씨 댁, 김선희 조사.
허노생(여, 1932년생, 서귀포시 서호동)

[조사자] 귀신 봐난 얘기는 엊수과? 도체빗불은마씸?

[제보자] 도체빗불은 우린 안 봐난. 어떤 사람들은 제사 먹으려 가당 오당 뭐 무시거 헹. 편즉편즉하믄 말제인 뒤터레 가당 보민 탁 사가정. 사람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헷젠 해도. 난 그런 건 봐나진 안 헤연. 들어만 봐낫주. 이 동네는 그런 거 아니 나완.

요즘은 다 혁신뒈 부난 했주만은 얘기들 어린 때 죽으민 그디 묻으는 산들 막 하여 잊어낫주게. 게믄 밤이 '글로 얘기 우는 소리 납저.' 해도. 우리 그레 멀곡 그런 거 들어보지도 안 허곡.

- 핵심어 : 도체빗불, 편즉편즉, 애기무덤, 우는 소리